



신석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근상

306-1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201-1
3430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601번길 26
(엑슬루아파트 후문, 등마루 공원 앞)

교회 ☎ 932-5478 목사관 ☎ 934-9817 ☎ 사무실 934-9192

홈페이지 shinseok.net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짧은 글 깊은 생각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때로는 지치고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고난이 교회를 위한 의미 있는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이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겪는 고난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기 위한 헌신의 과정입니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겪는 어려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교회의 아픔은 주님의 아픔으로 연결됩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을 역지로가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감내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영혼을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나 영광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일이 아니라, 영혼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만드는 '해산의 수고'였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골 1:29)고 고백하며,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완수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영혼을 세우는 거룩한 헌신입니다. 고난은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영광스러운 사역의 일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며 기쁨을 느끼듯,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일에서 하늘의 기쁨과 보람을 경험합니다.

말씀진 직책에서 충실히 섬기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합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지난주일 설교중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8시 2부:오전11시			인도: 박근상 목사				
기	도		다	같	이		
경배찬송		1장		다	같	이	
성서교독		36번 시90편		다	같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40장		다	같	이
기	도			1부	최민관목사		
				2부	오종수장로		
성경봉독		마가복음4:26-29		인	도	자	
찬	양		하나님의 사랑		성	가	대
설	교		하늘의 씨를 뿌리는 사람		박근상목사		
기	도			인	도	자	
찬	송		496장		다	같	이
헌금봉헌		헌금함예		다	같	이	
헌금기도				인	도	자	
광	고			인	도	자	
찬	송		기쁨으로 찬양		다	같	이
축복기도				박근상목사			

금주의 말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4:26-27

삼일예배 오후 7시 30분
합심기도
기도/ 황순화 권사
말씀/ 박근상 목사
예배소서교회론(69) 6:15-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5)
찬송/ 505장
주기도문

새벽기도회 오전 5시 2층 본당
말씀/ 박근상 목사 **성경- 로마서.스가라서 강해**
*주일은 새벽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 교회소식
- 이번 주는 로마서와 스가라서를 묵상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 삼일예배에 교회론 강해가 계속됩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5)
 - 주보에 자료가 있습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5)’

- 10월 계획
- 12일(주일) 온세대연합예배입니다.
 - 12일(주일오후) 소그룹의 시간입니다.
 - 14일(화) 오전11시 노회 정기노회 (2층 본당)
 - 16일(목) 오전11시 교단 증경총회장단 모임(1층 교육관)
 - 17일(금) 오후8시 밤기도회
 - 20(월)-21(화) 총회 농어촌선교회 집회인도 (서천 청소년수련원)
 - 요한계시록 강해 ‘비밀’ 독후감을 받습니다.(사무실)
 - 10월 26일 주일까지

■ 말은 청지기 ■

	안 내	기 도	꽃꽂이
이번주	1층 박현규 오종화	최민관	김예영/생일감사
	2층 최정선 김춘자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다음주	1층 김종기 오종수	오종화	이상열 찬영순/결혼기념
	2층 최정선 김춘자 주차안내 이상열 최정선		

청소담당: 2,3층 이번주(10,17) 2구역(이미션)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다음주(10,24) 3구역(노인숙)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유아부(4층 유아실) 주일 오전11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롬 5장 1절 제 목 -그리스도의 몸	활동 1.10월 암송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2.오늘의 활동은 섬김이베포지 만들기입니다.
유초등부(1층 교육관) 주일 오전9시 [예배] 온 세대 연합예배 드립니다.(11시, 본당)	1.10월 암송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2.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한 헌금을 드리세요. 3.다음주 기도는 이효정 선생님이십니다. 4.새소식반 놀러 오세요. 토요일 오후 3시 4초 유아부실
중고등부(5층 예배실) 주일 오전9시 [예배] 온 세대 연합예배 드립니다.(11시, 본당)	1.10월 암송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2.오늘은 11시 온세대연합예배로 드립니다. 3.10월 19일(주) 예배인도는 백가은자매, ppt는 오한금채, 기도는 조수윤형제입니다.
청년부(5층 예배실) 주일 오후2시 [예배] 온 세대 연합예배 드립니다.(11시, 본당)	1.오늘 연합예배 여는 찬양은 청년부가 합니다. 2.10/18(토) 청년부기도회, 16시 새신자나눔 합니다.(5층 벨엘룸) 3.10/19(주) 대표기도는 김금모 형제입니다.

공동 예배		
주일낮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유년주일학교 주일 1부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새벽기도회	매일오전 5:00	청년부 주일 오후 2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5)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성경은 워낙 두껍고 오래된 책이라 처음엔 막막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닌, 작은 도서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쓴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66권의 책을 모아놓은 작은 도서관에 가깝습니다. 다양한 저자, 다양한 시대: 약 1,50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에 걸쳐 40명이 넘는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저자들의 면면을 보면 왕, 어부, 의사, 세금 징수원, 목동, 학자 등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그렇다 보니 책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역사 기록, 아름다운 시와 노래, 삶의 지혜를 담은 글, 미래를 예언하는 글,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편지까지. 마치 도서관에 가면 소설책, 역사책, 시집이 따로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기도 합니다. 딱딱한 역사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아름다운 시가 나오기도 하고, 논리적인 편지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먼저 이해하면 "성경은 왜 이렇게 복잡해?"라는 의문이 조금은 풀릴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다양한 책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신 특별한 기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서 완성된 책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각 시대와 문화 속에서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경험,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과 계획을 드러내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성경의 핵심 줄거리: 한 편의 거대한 드라마

66권의 책이 제각각인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큰 줄거리를 알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마치 드라마 전체를 요약한 시놉시스((synopsis)를 알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1막: 창조 (완벽한 시작)

성경은 세상이 우연한 폭발로 생긴 먼지 덩어리가 아니라, 선하고 지혜로운 창조주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아름다운 곳이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있습니다. "나는 왜 존재할까?"라는 질문에 성경은 "당신은 사랑받고, 다른 이를 사랑하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돌보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존재"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2막: 깨어짐 (어긋나버린 관계)

하지만 이 완벽했던 세상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선택하면서 모든 관계가 어그러졌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심지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 말입니다. 매일 뉴스에서 보는 미움, 다툼, 거짓말, 아픔, 죽음과 같은 문제들의 뿌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3막: 회복의 약속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은 망가진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그들을 통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할 거대한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이 과정은 순탄치 않아요. 사람들은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약속을 되새기며 "언젠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구약성경의 대부분이 바로 이 기나긴 기다림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막: 예수 (드디어 나타난 주인공)

마침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나 종교 창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보여주기 위해 사람이 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품어 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사회에서 외면받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5막: 새로운 시작 (이야기는 계속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 드라마의 절정입니다. 그의 죽음은 인류의 깨어짐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희생이었고, 그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며 누구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의 증거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망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정의의 실천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어떻게 읽어야 할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어디까지 사실로 믿어야 할까요? 성경에는 실제 역사적 인물, 지명, 사건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성경 기록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역사책처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만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창세기의 '6일 창조' 이야기는 과학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혼돈과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질서와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깊은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분명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지 마라"는 교훈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한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만약 "착하게 살아라"가 전부라면 그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매우 중요한 주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자연스럽게 삶의 태도가 변하고 그것이 윤리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장르에 맞게,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읽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는 시의 언어로, 비유는 비유의 의미로, 역사는 그 시대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왜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일까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라는 질문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같은 분이세요"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성품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시키는 다리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5. 누구나 성경을 읽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읽는 비밀 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깊은 고민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책입니다. "나는 왜 사는 걸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의 부조리와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걸까?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당신은 이미 성경과 대화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 질문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경을 향하여 말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초대장입니다.

성경은 시험지가 아니라,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마음에 와닿는 한 문장, 한 인물, 한 장면을 발견하고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이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눔식 소그룹 스가랴 3:1~10(10월 16일 본문)

거룩한 예포의 사람들

하나님 찬양하기 * 큰 죄에 빠진 나를(새 295)

Focus :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스가랴 3:1~10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첫 번째로 본토에 돌아온 유다 백성이 보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가 없었습니다. 이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수아)의 지도아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외부 대적자들의 방해와 내부 백성의 무관심으로 인해 성전재건 공사가 약 16년간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촉구하셔서 공사가 재개되었고, 주전 516년 마침내 성전이 완공됩니다. 3장에는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 언약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1. 관찰과 묵상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벗기고 무엇을 입히셨으며, 머리에 무엇을 씌우셨나요?(4~5절)

적용과 나눔

죄인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나는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는지 나누어 보세요.

2. 관찰과 묵상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을 가리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셨으며, 무엇을 나게 하겠다고 하셨나요?(8절)

적용과 나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 다지기

하나님은 더럽고 비천한 죄인을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고후 5:17).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죄 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죄로 더러워진 저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 사장의 사명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 부진이 심각했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정부가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우도록 기도합니다.

2.필리핀에서 허위 선교 활동, 위장 결혼, 대리 출산 계약등의 수법으로 인신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 행위가 끊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메모

본문:

제목:

이름:

이번 주간에 꼭 실천해야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신석장로교회는

1984년 5월 17일에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대신)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박근상 담임목사는 대덕구기독교연합회 회장, 대덕경찰서경목실장 대전기독교연합회회장, 대전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 부총회장을 역임하고 대전극동방송. 대전기독교방송을 통하여 1만회 이상 매일강해설교를 했고 유튜브[박근상매일성경]을 2000여회 방송중입니다.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홈피 shinseok.net

주님의 시간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박근상

시무장로: 김일남 박현철 오종수 유상수 이상선 이상열

협동장로: 김종기 박성훈

교육목사: 최민관 전도사: 윤태영

사무간사: 손영문 건물관리 총무: 오종수

성가대지휘: 최의석 반주: 피아노- 김래아 유혜환 오르간: 윤연정

찬양인도: 최의석

방송.영상: 윤홍규 한현구 중보기도사역팀: 천영임

홈피 관리: 최민관 손영문

이슬비전도대 총무: 노인숙 협동총무 장민채

강단꽃꽂이: 김향례 박종례 손영문 유은희 최금숙 황순화

차량봉사: 이상열 유상수 주차관리 : 김종기 오종수 이상열 황학성

담임목사 방송사역

10 분 설 교	대전극동방송(FEBC)	매 주(월) 오전10시 50분(내가 매일 기쁘게)
주 일 설 교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 주일 오후5시 (신석의 시간)
오늘의 은혜로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 주(금) 오후1시 5분-15분
TV방송칼럼	대전CTS	매 주(토) 오전 10시 50분(로템나무)